

문대통령, 트럼프·시진핑과 연쇄 정상회담...북핵 해법 찾나

트럼프 방한·APEC 정상회의 '슈퍼 위크'

한·미 정상, 물 샅 틈 없는 동맹 재확인·FTA도 논의
한·중 정상, '사드 합의' 불편했던 양국관계 해빙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슈퍼 위크'(Super Week)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연쇄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역내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뤄져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갈림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가운데 문 대통령의 두 정상과의 단독 회담 사이에 북한 문제 해법을 도출할 또 다른 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 회담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어떠한 합의점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서울에서의 첫 대좌이자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6개월 만의 세 번째 만남이라는 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두 정상의 만남은 물샷틈없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또한 양 정상은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라는 방법론적 해법에 공감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옵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3일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경제·외교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 없는 북 핵 위기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이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방향성 제시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를 하면서 현시점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화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을 밝힌 데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주목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대한 진전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참석하는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방문 기간 회담에 이은 석 달여 만이다. 특히 시 주석이 '사드 합의' 이후 전격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동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열려 불었던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정상화에 의견 일치를 보면서 경제·문화 등 그동안 불편했던 분야의 정상화를 합의문에 담을



트럼프·아베 '골프 회동'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5일(현지시간)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 가스미가세키CC에 도착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맞이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이곳에서 오찬을 한 뒤 골프 라운딩을 했다. /연합뉴스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압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도 눈여

겨볼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시 주석의 더욱 적극적인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제재만 마련을 강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트럼프 방일...대북 발언 수위 촉각

아베와 4차례 식사 우의 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일본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에 돌입했다. 아베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4번에 걸쳐 함께 식사를 하고 북한 남치 폐쇄가 가족 만남과 같이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과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도 요코타 미군기지를 통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일본에 도착했다. 비행장에는 주일 미군들 수백 명이 모여 방일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대상으로 연설하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어떤 국가, 어떤 독재자, 어떤 체제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십수 년에 걸쳐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우호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적인 방문을 환영한다. 두 정상의 신뢰관계 위에 미일 동맹의 끈을 더욱 더 강고하게 하고 싶다"고 말한 뒤 사이타

마현 가스미가세키C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골프 라운딩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에는 아키히토 일왕과 만담한 뒤 아베 총리와 도쿄 모토아카사키의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미일 양국의 연대를 강화해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국제 사회에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압박을 동참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1977년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와 만날 계획이다. 이어 저녁에는 아베 총리 주재의 정상 만찬이 예정돼 있다.

방일 기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특유의 손님 접대문화(오모테나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4번이나 식사를 함께 하며 스킨십을 과시한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나란히 광주시외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뒷받침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당과 광주시는 5일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국회에서 국민의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 천정배 의원,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김경진 의원, 권은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광주총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 '투톱'과 광주지역 국민의

안철수 '호남 민심 챙기기'

국민의당, 국회의원 7명 참석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

당 국회의원이 모이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호남 민심 챙기기'의 하나로 행사가 진행됐다.

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9월 광주 시민에게 약속한 5·18특별법 통과,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강력한 중도 개혁정당으로서의 역할 등은 반드시 지켜야겠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광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또 "광주시가 예산 1624억 원을 신청했는데 718억 원만 반영됐다. 호남 SOC 확대가 없거나,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먹거리가 포함돼 다행이라고 하면 안된다"면서 "광주는 발전해야 한다. SOC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도 "다당제 하에서 정치

가 물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호남 출신 총리와 장관이 나왔고, 검찰총장과 육군 참모총장도 배출했다"면서 "호남 정권,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이 국민의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며, 누락되고 삭감된 예산들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소외와 차별을 겪으며 살아온 광주시민의 한이 꿈으로 바뀌려면 지역을 살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밸리, 문화융합콘텐츠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광주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살펴온 국민의당에서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원 기념품!!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신행 고객 (공제안권 및 예적금생원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일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달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

예금 특 판

정기예탁금

1년 **2.4%**

2년 **2.5%**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